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편집자 노트〉 관련기사, 6, 7, 8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톤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레베카 맥네일 보스톤지식재산법회회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스테판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 윤 대통령, 데이비스 브라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장, 요하네스 프로이허우프 랩센트럴및 바이오랩스 대표, 고종성 제노스코 대표, 뒷줄 왼쪽부터 이인실 특허청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성훈 재미한인 특허변호사협회장, 윌리엄 하이트 존슨앤존슨 부회장, 로버트 플레이터 보스톤 다이내믹스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그로스로 베인캐피탈 파트너, 제프 스미스 매킨지 보스톤 파트너,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사상 첫 대통령 방문으로 보스톤의 가치 확인...상처도

보스톤 바이오, 학계, 정계와 인적 경제적 네트워크 형성
대통령의 보스톤 방문은 한인사회에 중장기적 경제적 혜택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 고수로 한인사회에 분열의 상처 남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보스톤을 2박3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최초의 방문이다.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보스

톤을 그다음 방문지로 삼아 2박 3일을 머물렀다는 것은 그만큼 보스톤의 가치가 컸다는 의미일 것이다.

윤대통령은 워싱턴 방문 다음날 정상회담 전 일찌감치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에 온 목적을 분명히 했다.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한반도 핵안보 확보가 가

싸다고 가입한 제3 전력공급사 알고보니 주민들 비싼 값 치뤄

제3 전력 선택 주민, 지난 6년 \$2500만 손실
새로운 보고서, 저소득, 유색인종 소비자 피해 많아
경쟁마켓 전력공급사와 계약한 사람들 많은 돈 손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내셔널그리드, 에버소스 등의 유틸리티 회사의 전력이 아닌 자신의 임의로 선택해 계약한 전력회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소비자들이 지난 6년간 5억2천5백만달러를 더 지급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주 법무장관실이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유경쟁 전력공급사(competitive suppliers)를 사용한 주민의 경우 매년 수백만달러를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약 43만명의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1년 당 \$231를 더 내고 있었다.

이번 보고서는 다시 한번 낮은 전기요금을 주장하며 계약을 설득하는 경쟁시장 전력공급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훨씬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등 기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법무장관실은 지적했다.

앤드레아 캠벨 법무장관 >>4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2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협회 정치인턴 기금 모금 만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시민협회는 정치인턴기금 모금만찬을 5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턴 소재 포포인츠 웨라톤호텔 (Four Points By Sheraton)에서 개최한다.

시민협회의 올해 정치인턴 장학생 모집에는 총 16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6명이 정치인턴으로 선발됐다. 대학생이 2명이며, 고등학생이 4명이다.

시민협회 양미아 회장은 이메일을 통해 “그동안 100명이 넘는 정치인턴을 선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한인 2세들의 정계 진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며 “1세대 한인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바쁘신 일정이지만, 미국 속의 한인사회를 위한 미래의 차세대 양성을 위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여러분 모두의 참여가 빛나는 시간 같이 하시길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고 당부했다.

올해의 시민협회 모금만찬의 기조연사는 서머빌 지역구 주하원의원인 에리카 아이터호번 (Erika Uytterhoeven)이 초청되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앤디김 연방하원의원도 축사를 전한다.

정치인턴 만찬에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이벤트브라이트



(<https://2023PIFD.eventbrite.com>)에서 RSVP를 하면 된다.

시민협회는 한인 단체 중 가장 빠르게 세대전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양미아 회장을 제외한 전원 임원진

들이 2세로 구성돼 있다. 해마다 정치인턴, 한국의 날, 영리더십 심포지움 행사를 개최하며 2세들의 정계 진출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일을 하고 있다.

Taste of Archery

MAY 27, 2023

10:00AM | 11:00AM | 1:00PM | 2:00PM

Have you ever shot a bow and arrow? Experience archery with a certified instructor. Perfect for beginners. For ages 12-100! Bring your friends, bring your parents!



Free of charge, register for a 30 minute session by sending your name, age, phone/email, and preferred time slot to info@k-scout.com by May 20, 2023.

무료 양궁 체험 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미청소년프로그램 (Korean American Youth Program)은 5월 27일 뉴햄프셔 어번에 위치한 캠프 프레드테일호크에서 무료 양궁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토요일 오전 10시, 11시, 오후 1시 및 2시 4차례 50분간 5학년 이상의 자녀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

무료 양궁 체험행사는 양궁 지

도 자격증을 보유한 진태원 디렉터의 지도하에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 가족들은 5월 20일 이전까지 이메일 (info@k-scout.com)로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시 이름과 나이, 이메일 및 전화 그리고 원하는 시간을 명기해야 한다.

진태원 디렉터는 “자리가 많지 않으니 반드시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셔야 한다” 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브루클라인 1208 비컨스트리트에 개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H마트(구글 스트리트 뷰)

H마트 브루클라인 비컨스트리트에 4호점 준비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H마트가 브루클라인 (Brookline, MA) 비컨스트리트 선상에 4호점을 개점을 준비하며 급격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여름 퀸지점을 개점한 H마트는 지난해 5월 문을 닫은 훌팡즈 점 자리에 브루클라인점을 개장할

예정이다. 정확한 개장일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위를 지나는 한인들은 이미 H마트의 입점을 알고 있는 상태다.

브루클라인점 인근에는 규가큐, 일본 빵집 등이 위치해 있다. 전철은 세인트 메리스 역이 바로 앞이며 다만 주차는 용이하지 않다.



고대 교우회 2023년 1차 정기모임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고려대학교 뉴잉글랜드 교우회는 지난 4월 29일 토요일 워터타운 (Watertown)에 소재한 바이오랩에서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모임인 2023년 1차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30여명이 이날 모임에 참석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아름다운 캠퍼스 사진을 보며 서로를 소개하고 추억을 공유하며 교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현주 (영문 01)교우와 김재원 (영문 01)교우는 18년만에 처음으로 보스톤 교우회 모임에서 만나 반가움을 나눴다.

회장단으로 박성철 (노문 93) 회장, 박가영 (화학 96), 최성휴 (농화학 92) 부회장, 고영복 (법 00) 회계 그리고 이대식 (경영 96) 감사가 유임되었고,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온 유우진 (통계 06) 교우가 총무로 선출됐다.

박성철 회장은 "이번 모임은 모처럼 교우들의 근황을 확인하고 향후 교우회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좋은 자리였다"면서 "임원진들과 함께 교우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희 (금속 81) 교우는 "예전과 달리 많은 교우들이 바이오 관련 산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보스톤의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면서 같은 산업군에 종사하는 교우들 간의 많은 소통과 협력을 바랐다.

교우회는 5월 20일에 고연전 골프대회를 갖고 올 9-10월 2차 정기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교우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박성철 회장 (노문93, spark32@gmail.com), 유우진 총무 (통계 06, woojinr@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문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정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Shoe City Family Den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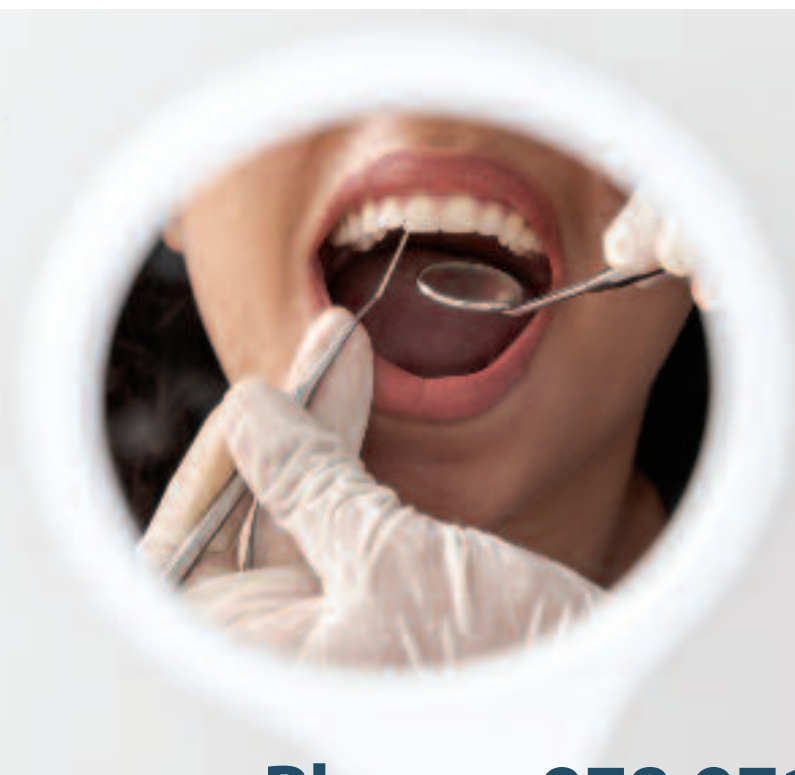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보스톤 뉴베리스트리트 7월부터 매주 일요일 차량 제한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 뉴베리 외에도 다른 스트리트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의 뉴베리스트리트는 7월부터 10월까지 보스톤시의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에 따라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은 2일 뉴베리 스트리트와 더불어 도체스터, 자메이카플레인 그리고 락스베리 지역에서도 오픈스트리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올해부터는 올스턴, 이스트보스턴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각 지역마다 다양하지만 푸드트럭, 아이들을 위한 액티비티 그리고 각종 공연들이 어우러진다. 이 프로그램은 새나 브라이언트 컨설팅이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시작됐으며 뉴베리스트리트의 경우 7월 2일 일요일부터 10월 15일 일요일까지 10차례 진행된다. 오픈스트리트 진행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다.

오픈스트리트 차량 통제 및 진행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다음의 지역에서 실시된다.

Sunday, June 25: Centre Street, Jamaica Plain

Saturday, July 15: Blue Hill Avenue, Roxbury

Saturday, Aug. 19: Harvard Avenue and Brighton Avenue, Allston

Sunday, Sept. 17: Dorchester Avenue, Dorchester

Sunday, Oct. 15: Meridian Street and Bennington Street, East Boston

hsb@bostonkorea.com

싸다고 가입한 제3 전력공급사 알고보니 주민들 비싼 값 치뤄

▶▶1면에 이어서

은 “이 같은 불공정이 유색인종들과 저소득층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을 안다. 검찰은 계속 이처럼 약자를 이용하는 행위에 관심을 갖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법 제정을 위해 힘을 쏟을 것” 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켈범 법무장관과 브렌든 크라이턴 상원의원, 그리고 프랭크 모렌 하원의원 등이 올해 초 상정한 법안에 대한 관심을 요구했다. 이는 매사추세츠 개인들이 기반적인 회사에 계약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이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매사추세츠 저소득층은 자유 경쟁시장의 전력공급사와 계약하는 확률이 2배 높으며, 전력회사들은 비 저소득자 요금보다 훨씬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했다.

-한달에 600킬로와트를 쓰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1년당 평균 \$254의 손실을 입었지만 평균 소득 가정의 경우 한달 평균 \$222의 손해를 입었다.



-저소득 가정 전체로는 연구 기간 중 총 2천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

-이 같은 불균형적인 손해는 스프링필드, 우스터, 폴리머 그리고 로웰 등의 저소득 및 유색인종이 많이 거주하는 게이트웨이 도시들(Gateway Cities)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 같은 현혹적인 마케팅행으로 손해의 우려가 있는 주민들은 주검찰청 핫라인(617-727-8400)으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이 문제는 주 법무부 에너지 및 원격통신부서 나단 포스터 수석검사와 엘리자베스 앤더슨 부수석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hsb@bostronkorea.com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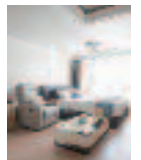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윈트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매사추세츠 세수 폭락, 세금감면에 타격 주나

1년전 4월에 비해 22억달러 덜 걷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기록적인 세수를 거두었던 매사추세츠의 올해 4월 세수가 대폭 감소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2억달러나 줄었다. 올해 세금 적자까지 예상되면서 자녀 세금 크레딧 등 세금감면안이 또 한번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비록 의회나 주 예산국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세수가 일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하고 있었으나 세금이 가장 많이 걷히는 4월 세수가 예상외로 폭락하자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이번 달 세수는 당초 6억달러 감소를 예측했던 주세청의 예상 금액보다 16억달러나 적었다.

주는 지난달만 해도 당초 예상보다 많은 8억6천 8백만달러의 세수를 거둬 들였다. 그러나 4월 들어 세수가 급감하면서 주는 이 적자를 1년전 세수 잉여때 만들어진 에스스로 계좌에서 약 17억달러를 충당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 재정부는 이 같은 세수 폭락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지출을 줄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맷 고츠코우비치 주 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이미 올해 세수 감소를 감안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세수적자 예상은 모라 힐리 주지사과 주 하원이 추진하던 자녀세금 크레딧 증가 등의 세금 감면조치에 찬물을 끼얹을 개연성이 커졌다.

주 하원은 최근 5백62억달러 예산안과 세금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세금 감면안은 매해 약 11억

달러의 추가 지출을 요하고 있다.

주 상원은 다음주 상원 자체의 예산안 및 세금 감면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4월의 세수 폭락현상을 경험하면서 주지사의 올해 가장 큰 정책으로 평가되는 세금감면안을 받아들여 하원처럼 유사한 안을 편성할 것인지 의문으로 남고 있다.

올해 세수의 급감은 두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주식시장의 침체로 자본소득세가 급감했으며 두번째는 주 예상보다 많은 세금전가사업체 (pass-through entities)들이 자신들의 크레딧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법인세 및 식당에 부과하는 음식세금 등의 세수는 예상했던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므로 이 같은 측면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폭감은 아닌 것으로 진단했다.

재정부는 현재의 세수감소가 주 예산을 적자로 몰아넣지 않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과도한 자본소득세 인여는 레이니데이펀드로 알려진 비상세이빙계좌에 의무적으로 저축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자본소득세 감소가 세수 감소의 원인인 경우 이 계좌에서 충당할 수 있으므로 예산 적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해석이다.

또한 고츠코우비치 장관은 4월의 세수 폭감으로 인해 주정부의 10억달러 세금 감면안마저 좌초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정부는 50억달러 세수 잉여를 기록해 1980년도 세금환급법을 발동시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30억달러를 주민들에게 환급했었다. 지난해와 그림이 너무도 상반되는 상황이다.



하버드 전철역 천정서 버팀대 떨어져 30대 여성 부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일 오후 하버드 전철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여성이 천정에서 떨어진 버팀대에 맞아 부상당했다. 하버드 전철역에서는 한달 전에도 천정 패널이 떨어져 한 승객을 다치게 할 뻔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사추세츠교통공사(MBTA) 대변인에 따르면 오후 4시 30분께 전철을 기다리던 여성은 천정의 기둥에 붙어있던 저장박스가 떨어져 내리며 함께 떨어진 버팀대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인근에 앉아있었던 한 여인은 보스톤 글로브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커다란 굉음을 들었고 광 소리와 함께 천정에서 금속장치들이 떨어져 내렸다”고 회상했다.

케임브리지 소방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다. 이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않았다.

MBTA 대변인은 “승객들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BTA 총괄매니저인 필립 잉은 1일 하버드 역으로 달려가 피해상태를 살펴보고 대책을 지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로프를 쳐서 접근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레드라인 전철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사고 지역은 지난 3월 1일 약 20파운드에 달하는 천정 패널이 떨어졌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당시 패널은 거의 한 승객의 인근에 떨어져 부상을 당할 뻔 했다. MBTA 측은 사건 직후 약 100여개의 천정 패널이 교체했으며 일부 다른 레드라인 전철역의 천정 패널까지도 점검했다.

MBTA는 지난해부터 각종 사고가 발생했으며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hsb@bostonkorea.com

SINCE 1899
정관장
紅蔘
6년근
KOREAN RED GINSENG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J.K. PLUMBING & HEAT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 (Dish 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윤대통령 보스턴 클러스터 업계 인사들과 면담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모더나 발굴' 랩센트럴·모더나 등 참석 보스턴, 가장 혁신적 클러스터... 양국 협력·제도 개선 방안 논의

(보스턴=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보스턴에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을 주재하고 양국 간 첨단산업 클러스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스턴은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과 연구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하버드대학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 등이 몰려 있는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벤처 기업과 청년들이 바이오헬스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사는 보스턴의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기관 랩센트럴의 요하네스 프루에하우프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랩센트럴은 바이오 기업 '모더나'를 발굴했다.

윌리엄 하이트 존슨앤드존슨 부회장, 로버트 플레이어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최고경영자),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 등을 비롯해 베인캐피탈·맥킨지앤드컴퍼니 관계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장, 보스턴 지식

재산법협회 회장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250년 전 미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던 보스턴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러스터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스턴과 한국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이 결합된다면 양국 경제 모두에게 큰 시너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클러스터 산하 연구 개발, 투자, 법률,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협업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는지 여러분으로부터 귀한 경험과 고견을 듣고 싶다"며 "협업 방안이 유익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셀 모더나 CEO는 "바이오 테크의 경우 임상실험 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은 자본금의 일부를 바이오 테크에 투자하도록 하는 정책 덕분에 충분한 자본 조달이 가능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프루에하우프 랩센트럴 대표는 "보스턴 클러스터의 경우 다양한 기업과 인재로부터 나오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벤처캐피탈, 경영, 법률 기관들과 접목돼 모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돼 있다"며 한국이 이날 MOU를 계기로 이런 강력한 협업 체계를 배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그로스로 베인캐피탈과 트너는 "보스턴 클러스터의 성공에는 '매사추세츠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정부의 역할이 컸다"며 주정부가 세금 및 각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창업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레베카 맥닐 변호사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위해서는 특허를 통한 독점적 권리 보장, 이를 통한 자금투자·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은 윤 대통령은 "보스턴 클러스터의 핵심은 결국 '머니 플로우'(혁신 기술에 대한 자본 투자)에 대한 신뢰, 성과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라며 향후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하고 노력을 기울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서 참석자들 소개에 박수치고 있다

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대행사로 개최된 '투자·현지 진출·지식재산권 상담회'를 둘러보고, 상담회에 참여한 벤처·스타트업을 격려했기도 했다.

이날 상담회에 참석한 벤처·스타트업들이 약 1천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자금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국의 K-바이오 랩허브는 랩센트럴과 MOU(양해각서)를 체결, 보스턴 클러스터의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양자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K-바이오 랩허브는 의약 바이오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랩센트럴'과 같은 세계적인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매사

추세츠 종합병원(MGH)을 비롯해 클러스터 협력 관련 총 4건의 MOU도 이날 함께 체결됐다.

이외에도 대응계약은 미국 에디텀 바이오와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 계약을, 카카오헬스케어는 구글과 AI를 활용한 기술협력 MOU를, 지엠에스헬스케어는 웨스트캡과 미국 공공조달시장에 실험실용 냉장고를 납품하기 위한 최대 2천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하는 등 총 9건의 바이오 분야 MOU가 체결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개선을 통한 클러스터 혁신을 촉진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을 수립하는 등 경제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주청사서 모라 힐리 주지사와 면담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오 매사추세츠 주청사를 방문 모라 힐리 주지사와 오찬을 나누며 면담했다. 주청사에는 태극기가 걸렸으며

주정부는 주청사 정문을 열어 윤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예정된 시각보다 조금 늦은 12시 20분께 주청사에 도착, 마중 나온 모라 힐리 주지사와 함께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주청사

로 들어섰다. 이날 주청사 방문에는 주호영, 김태호 국민의 힘 의원들이 함께 했으며 유기준 총영사도 동행했다.

editor@bsotonkorea.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윤, 하버드 케네디 스쿨 대담...워싱턴선언, 핵 포함된 방위 개념

韓, 핵무장 마음먹으면 1년 이내에도 가능한 기술 기반 구축 우크라 무기 지원 여부에, 전황 예의주시...다양한 옵션 있을 수 있어 日과거사 정리안되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단 생각 벗어나야

(보스턴=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과 관련,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스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설 이후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및 청중과 대담에서 "북핵 위협이 눈앞에 온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핵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 의무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며 "워싱턴 선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엔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와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특정 국가와의 문서로 정리된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할지 묻는 나이 교수에게 "늘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좋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개발이 고도화되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결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안보리 이사국들이 협조를 좀 충분히 하지 않은 탓에 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됐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도 함께 노출돼 있기에 (워싱턴 선언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공격무기 지원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는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전황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또 국제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한민국의 독자적 정책은 없다. 그래서 안 된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조정해 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사

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간에 과거 식민 시절과 관련해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미래의 협력력이 과거사와 관련된 국민 간 감정적인 문제, 인식의 문제들을 많이 고쳐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전격 복귀시키는 결정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아프리카 수단의 일본인들이 대외 과정에서 한국 도움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몇 달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청중석에 있던 한 일본인 학생의 한일관계 관련 질문에도 "변화가 이뤄지고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정권이 변한다 하더라도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한테는 변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 강화 방안을 묻는 나이 교의 질문에는 BTS와 블랙핑크, '미나리',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도와준 것이 거의 없다. 순수한 민간과 시장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소프트 파워'는 나이 교수가 창안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한 개념이다.

한 국가가 문화적 매력 등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힘을 지칭하는 말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상징되는 '하드파워'와 대비되는 용어다.

윤 대통령은 "전세계 마켓을 단일 마켓으로 만들 수 있게 개별 국가에서 규제를 먼저 풀어가는 쪽이 소프트웨어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나이 교수는 "정말 완벽한 답변을 해주셨다. 케네디스쿨 재학생이라면 A학점이 바로 수여될 정도로 훌륭한 답변"이라고 농담을 던져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대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국제사회는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버드대 재학 중 28세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하버드인' 윌리엄 해밀턴 쇼대위 이야기를 꺼내며, 쇼대위 손자와 며느리가 함께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연단에서 내려가 두 사람과 악수하며 영어로 "감사하다. 우리는 당신의 가족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엘먼도르프 케네디스쿨 학장은 축하사에서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인 한덕수 국무총리, 케네디스쿨을 졸업한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장관 등을 거론하며 "한국을 위한 건설적인 기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메모리얼 처치'를 방문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하버드 동문을 추모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목숨을 바친 하버드맨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문구와 함께 18명의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동판에 목례로 추모했다.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원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하이텍 플러밍
HIGH-TEK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Specialize in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Nail Salon Ventilation.
Residential & Commercial, New Construction, Remodeling

레스토랑(Restaurant), 네일살롱(Nail Salon), 레지덴셜(Residential) 다수 공사 경력
Master PL #15210
Fully Insured

David : 617.828.2993
Kevin : 508.215.9211
hightek2010@yahoo.com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역사상 첫 대통령 방문으로 보스톤의 가치 확인, 상처도...

▶▶1면에 이어서

장 우선순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두번째는 경제다. 윤대통령은 보스톤을 모델삼아 한국형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올해 초 밝힌 바 있다. 미국 정상회담을 논의하면서 이미 보스톤의 바이오 및 과학기술 및 벤처 캐피탈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보스톤 방문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윤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여러가지 평가가 나왔을 것이다. 정상회담 한번으로 엄청난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국가미래를 좌우할 장기적 비전의 씨앗을 뿌리는 작업이니 그 목표 설정과 추진 방향이 옳았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억제' 담보를 이끌어냈다. 한미간의 핵협의그룹을 통해 한국의 핵자산 운용 관련 관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 다만 한국의 당초 해석과는 달리, 핵무기 사용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한국이 핵 사용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미국의 확고한 답변은 아프다.

일부에서 '핵우산 보장 없이 핵무기 개발 포기만 선언' 한 것이란 불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부분이다. 그마저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적어도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초석은 다졌다는 점이 위안이다.

그러나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5척 수출은 물론 기술까지 전수하기로 한 반면 한국으로서는 '확장억제' 담보에 그친 점이 아쉽다. 본지 김은한 칼럼니스트는 이번 방미에서 "핵잠수함을 얻어내지 못한 것이 유일한 아쉬움" 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확인한 것은 큰 소득이었으나 북한, 중국과의 관계악화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부담일 수도 있다. 정부 일각에서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

내 국지적 전쟁도 감내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방점이 한반도 평화, 안보에 있지 않고 '국지전 불사' 라는 대결적 의미가 더 빠르게 읽히기 때문이다.

외교안보적 측면을 떠나 이번 방미는 경제적 측면에서 더 큰 아쉬움이 있다.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대미 투자를 진행했던 한국기업들의 경우 여러가지 독소조항으로 인해 보조금 혜택을 입은 만큼 토해낼 지경이다. 또한 미국내 생산 자동차에만 세금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은 한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커다란 패널티를 안겨 주고 있다.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지난해 278억 달러를 상회했다. 2020년에 비해 약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그럼에도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의 불이익 해소 관련 부분이 심각하게 논의됐다는 소식은 없다. 오히려 미국 기자가 미국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경제적 효과를 위해 우방인 한국에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냐고 물었었다.

미국을 방문했던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들은 이번 미국방문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가 "인적 네트워크 형성" 이었다고 밝혔다. 윤대통령은 보스톤을 방문해서 보스톤의 랩센트럴 등과 한국과의 바이오 인적, 물적, 제도적 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 성과는 보스톤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보스톤에서 바이오 및 과학계, 정계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중점을 두었지만 한인 그리고 매사추세츠 미국주민들과 살을 맞대는 인적 접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보스톤 방문 다음날 28일 모라 힐리 주지사를 주청사로 방문해 오찬을 나누며 대화를 가졌다. 주청사 국기계양대에서는 태극기가 휘날렸다.



이 오찬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비공개였다. 보스톤 로컬 기자들과의 간담회도 없었다. 로컬 기자들의 촬영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AP기자는 한국 대표단과 인터뷰를 원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연합뉴스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 오찬에는 김태호, 주호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주지사와 오찬에 매사추세츠를 이끌 한국인 2세 등이 함께 참여했다면 대통령이 이들에게 커다란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김건희 여사는 보스톤 미술관을 방문하고 유학생들과 오찬을 나눴다. 보스톤 미술관에서 보스톤 미술관장의 한국방문을 당부하고 한국과의 문화예술 교류관련 협력을 강화한 것은 반가웠다. 한국 큐레이터 부재의 아쉬움을 지적하고 보스톤미술관이 한류관련 전시회를 기획할 것 등은 보스톤과 한국의 활발한 문화예술 교류의 물꼬가 될 수도 있다.

역사적인 윤대통령의 보스톤 방문을 있는 그대로 보고 얻었던 것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솔직한 의견 제시는 좀더 나은 내일을 위

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보스톤 방문과 정에서 한인들의 감정적이고 원색적인 비난과 니편, 네티편 평가가 싸움은 당분간 한인들의 상처로 남을 전망이다. 자신의 입장을 미리 정해놓고 좋다, 싫다만 반복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는 지구촌이지만 그래도 실제 거리에서 만나면 한국이다. 한국과의 거리만큼 멀리서 한국을 바라보는 관찰의 거리를 늘려보자. 가까이서 보면 지저분한 것들도 멀리 떨어져 보면 아름다워진다. 보스톤에서는 이렇게 먼 거리에서 보는 시선을 가져보자. 결국 모든 출발점은 '나라사랑' 이 아니었다. '한국의 국익' 이란 관점에서 멀리 보면서 조금 다른 의견도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적인 대통령의 방문이 남긴 것이 한인 사회의 분열일 필요는 없다. 대통령의 보스톤 방문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경제 혜택으로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찌 보면 가장 큰 수혜자는 보스톤 권역에 사는 '우리' 일 수도 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2차 대상자 신청 및 지급 안내

I. 보상금 신청

신청기간 2022. 6. 1 ~ 2025. 5. 31 ▶ 4·3중앙위 결정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간	2022. 6.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6. 30	2023. 7. 1 ~ 2023. 12. 31	2024. 1. 1 ~ 2024. 6. 30	2024. 7. 1 ~ 2024. 12. 31	2025. 1. 1 ~ 2025. 5. 31	
인원	2,117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1,703 명 + α	

-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6차)에 신청함.
-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 840명
 - 8차 추가신고기간(23. 1. 1. ~ 6. 30.) 경과 이후, 유족 결정 후 신청

▶ 4·3종합정보시스템 (<https://peace43.jeju.go.kr>) 에서 신청순서, 신청서식,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최초 신청접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자연이치 지급

II. 보상금 청구

청구대상 ■ 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결정서 정본 및 통지서 송달받은 사람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 포함)

청구기한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청구서류 (해외거주자)

-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
-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송금 희망 시) 해외 송금 신청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 서식)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III. 신청금액

■ 사망·행방불명자: 9천만원

■ 수형인: 구금일수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9천만원 이하)

수형 / 구금: 형사보상 1일최고액 x 수형(구금)일수 + 위자료(2천만원)

집행유예(금고 이상): 4,5천만원 벌금형: 3천만원

■ 후유장애인: 장애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5천만원~9천만원)

1~3 등급	4~8 등급	9~14 등급
9천만원	7.5천만원	5천만원

■ 제외대상: 4·3관련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금 수령자 차감 지급

IV. 신청대상

■ 생존 희생자: 본인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민법상 상속권자

V. 신청서류 (해외거주자)

-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거주자 송달방법 신고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별지 서식)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 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접수 및 문의처

도내 거주자 ▶ 방문 접수

- 제주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2-64-728-1961~6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4-64-760-3991~4
-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

도외·해외 거주자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주도 4·3지원과 [보상지원팀] ☎ +82-64-710-8450, 710-8941~6
- ☎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4·3지원과 [보상지원팀]

전신 육수 폭발! 올인원 다이어트 챌린지



운동을 취미로,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아프지 않기 위해, 필요에 의해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줌라이브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상담시, 이런 얘기도 종종 들어요.

“선생님, 전 정말 운동에 취미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고, 수업 전에 늘 고민해요.. 오늘 수업 땀땀이 칠까..”

그러다가도 막상 수업에 참여해 1시간 땀 흘리며 열운하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다고.

운동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해보신 분은 그 무언지모를 성취감과 쾌감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시간 제대로 운동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강도를 살짝 높여 전신 운동과 요가 동작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유튜브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 에서 전신 육수 폭발 1시간 영상을 찾아해보시면 1시간이 순식! 정말 재밌게 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Hip Extension with a Chair : 둔근 강화, 힙 리프팅 효과

1단계 의자나 긴 폼롤러 혹은 벽을 앞에 두



고 한다리를 사진과 같이 뒤로 차올려 줍니다.

2단계 무릎을 90도 정도로 구부리고 무릎을 천정쪽으로 올리면 엉덩이 수축이 느껴질 거예요.

3단계 엽다운을 10-15회 반복하고 영상을 참조해 다음 동작을 진행합니다.

4단계 몇가지 동작들이 이어가는 콤보형식으로 힙운동을 진행하며 조금씩 강도를 높여 보세요.

TIP! 서 있는 다리는 살짝 구부려 무릎을 보호하고, 중심이 잘 잡힌다면 의자에서 손을 떼는 것을 시도해보세요.

2. Side Plank Hip Dip + Thread The Needle : 코어 강화, 옆구리살 정리, 어깨와 팔 근력 강화

1단계 팔꿈치를 내린 사이드 플랭크 자세에



서 엉덩이를 한번 내려서 힙딤을 해줍니다.

2단계 다시 엉덩이를 올릴 때 위에 뻗은 손을 반대 팔 겨드랑이 밑으로 뻗어 트위스트 합니다.

3단계 위의 두 동작을 7-10회 반복합니다.

4단계 두다리 뻗는 사이드 플랭크 유지가 힘들다면, 무릎을 내리거나 한 무릎만 세우고 발을 바닥에 대고 진행해도 좋습니다.

TIP! 코어와 팔의 근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두 무릎을 붙여 바닥에 대고 충분히 연습한 후, 무릎을 떼고 다시 해보세요!

3. Bow Pose : 자세교정, 복근 척추 강화

1단계 배를 바닥에 대고 두 손을 뒤에서 깎지껴 상체 전면을 스트레칭해줍니다.

2단계 두손을 풀고 무릎을 접어 발등을 잡습니다.

3단계 발등과 손을 서로 저항하며 가슴을 바닥에서 떼고 몸의 아치를 만들어줍니다.

4단계 무릎도 바닥에서 뗄 수 있다면 가슴과 무릎을 동시에 떼고 호흡을 천천히 이어가며 자세를 유지합니다.

TIP! 손이 발에 닿지 않는다면 영상을 참조해 뒤에서 깎지 끼고 버티는 것부터 연습하시고, 손과 발이 닿으시는 분들은 강하게 복부



수축해 허리가 다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하연쌤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나 이 때 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I've helped 350+ clients find their place in Greater Boston.

부동산 전문가,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FINANCIAL FREEDOM)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모든 상담을 해 드립니다.

실력, 열정 그리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더욱 풍성한 2023년 새해가 되도록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Awards:

- 2022 Boston Magazine Top Real Estate Producers
- Wall Street Journal America's Best Real Estate Professionals List

COMPASS

Achieved in 2022

\$22M+

TOTAL SALES & RENTALS

36+

TOTAL # OF TRANSACTIONS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케임브리지 미국 최초 기본소득제, 저소득 가정에 매달 \$500씩 지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케임브리지 시는 새로운 보장소득(기본소득)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매월 \$500씩 지급한다.

케임브리지시는 2일 “라이즈업 케임브리지”라 불리는 2천20백만달러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과거 빈곤과 소득 불균형의 개선을 위해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던 이 프로그램은 연방빈곤선 기준 250% 이하(4인 가족 기준 \$75,000)의 자녀를 보유한 가정에 지급한다.

자격이 되는 가정들은 앞으로 18개월간 매달 \$500씩을 받게 된다. 케임브리지 섬블 시디키 시장은 이 프로그램을 영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시디키 시장은 “이 프로그램은 많은 것들이 여전히 매우 비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소중한 생활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케임브리지의 생활비용을 고려했을 때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케임브리지시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며 첫 지급은 6월 30일에 시작할 계획이다.

시디키 시장은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유일한 보장소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신청자들을 추첨으로 선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약 2,000여 가정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장소득을 실험해온 여러 시들은 데빗카드를 사용했다. 케임브리지시는 카드 대신 현금 직접입금 방식을 사용한다. 은행이 없는 가족들의 경우 시는 은행 계좌 개설을 도울 예정이다.

보장소득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최근들어 점차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팬데믹을 계기로 논의가 확산됐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소득이 많은 혜택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존의 각종 프로그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도시의 예를 보면 보장소득 지급은 근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부분의 가정들은 이 소득을 음식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에 사용했다. 케임브리지시는 이전의 시범 프로그램에서 유사한 결과를 발견했다. 또한 기존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가정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며 가정들이 좀더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장소득 프로그램은 매우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현재는 각종 기부자의 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케임브리지 시는 미구제계획(ARP)의 코로나 지원금과 비영리단체인 케임브리지 커뮤니티재단의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케임브리지시는 현재 케임브리지 커뮤니티재단과 케임브리지 경제개발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다.

hsb@bostronkorea.com

윤 대통령 케네디 스쿨 연설, 일부 한인들 규탄 시위

보스턴 촛불행동, 뉴잉글랜드 한반도 평화 캠페인 주최 시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케네디 스쿨 연설 당일인 금요일 오후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앞에서 한인들이와 미국인들 50여명이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 규탄 시위를 벌였다.



윤석열 반대 시위 보스턴 촛불 행동, 뉴잉글랜드 코리아 평화 운동, 매사추세츠 평화운동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 및 퇴진 시위에는 50여명의 한인과 미국인 참여했다. 사진제공=보스턴 촛불 행동

보스턴 촛불행동, 뉴잉글랜드 한반도 평화 캠페인, 매사추세츠 평화운동 세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시위는 윤 대통령의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방문 시간에 맞춰 학교 앞 거리에서 열렸다.

50여명의 시위 참여자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은 물러가라”, “Yoon and Biden, Stop the March to the War (윤석열과 바이든은 전쟁을 향한 행진을 멈춰라)”, “Yoon, US Military Puppet” 라는 배너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한국인 1-2세 및 미국인 등이 참여한 시위대는 “윤 대통령이 검찰독재와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사대 매국적인 외교를 지속하고 있다”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위대는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들,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노동자, 여성의 인권을 묵살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케네디 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하는 것은 모순된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케

네디스쿨 연설에서 “세계 어디서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바로 독재와 전체주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은 민주 세력, 인권운동가 등으로 위장하고 있다. 이들을 늘 경계하고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위대와 윤 대통령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다.

한편, 시위대는 “한국-미국-일본 군사동맹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긴장과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전쟁 동맹을 받아들여 한반도를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윤 대통령은 전쟁광이며 한미일전쟁동맹을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위대는 한반도에 70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국전쟁을 끝내고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하원에 제출된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보스톤 한인들을 위한 말씀집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찾는 행복

당신은 그분을 만나보셨습니까?
늘 우리 곁에 사랑의 얼굴로 다가와서는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그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소문을 내지 않아도 소문 나던 분,
가난한 이들과 외로운 이들을 가까이 하시던
그분의 손길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텅 빈 것 같은 공허감을 느끼며
인생의 결국이 온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당신은 그분을 만나 보셨습니까?
온유한 모습으로 찾아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를 만나보셨습니까? **결정**하신은...

행복한 만남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강사 : 박진용 목사

- 5.30(화) 7:30pm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 5.31(수) 7:30pm 믿어보니 너무 좋아요!
- 6. 1(목) 7:30pm 순간의 일생을 영원의 일생으로!
- 6. 2(금) 7:30pm I will give you rest!
- 6. 3(토) 10:30am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일시

2023년 5월 30일(화) ~ 6월 3일(토)

장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보스톤 한인 교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781) 279-3270

기준금리 0.25%p 또 올려...한미 금리차 1.75%p로 '역대최대'

금리 5.00~5.25%로 16년 만에 최고수준...한은 25일 금리인상 고민 가중
연준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아...추가정책 강화에 누적 긴축 등 고려" 동결 여지
파월 의장 "인플레이션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금리 인하는 부적절" 선 그어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현 특파원
= 여전히 물가상승 압력에 시달리는 미국이 금융시장 불안 여파 속에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했다.

하지만 1년 넘게 지속해온 금리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해 다음달 중순 예정된 차기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린다고 밝혔다.

다소 완만해지고는 있지만 쉽사리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은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4.75~5.00%인 미국 기준금리는 5.00~5.25%로 올랐다. 이번 인상까지 합해 연준이 작년 3월 이후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됐다.

이날 금리인상은 FOMC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미 기준금리 상단이 5.25%까지 오르면서 한국과의 금리 차도 최고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한국 경제 피해도 우려된다.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예정된 상반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 활동은 1분기에 완만한 속도로 확대됐다"면서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는 견고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엄격한 신용 상황은 경제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 영향의 정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협에 상당히 주의하고 있다"고 금리인상 이유를 밝혔다.

일부 은행 파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서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며 신뢰를 보였다.

앞서 연준은 작년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유지한 제로 금리 시대를 마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붕괴 여파 등으로 물가가 급상승하자 작년 5월 0.5%포인트 올린 데 이어 6월, 7월, 9월, 11월에 4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이란 초강수를 두면서 인플레이션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자 작년 12월 0.50%포인트, 올해 2월과 3월 각각 0.25%포인트 올리는 등 인상 폭을 줄이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날 금리인상 발표는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도 인플레이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는 연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전년 동월보다 4.2%, 전월보다 0.1% 각각 오르면서 둔화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연준 물가 목표치(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지난 1분기 고용비용지수(ECI) 역시 전 분기보다 1.2% 상승했고, 3월 말 기준 미국 노동자의 전년 동월 대비 임금 상승폭도 5.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들이다. 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을(연준 목표인) 2%로 되돌리기 위한 추가 정책 강화가 적절할지 결정하는데 있어, 연준은 통화정책의 누적 긴

축, 통화정책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적·재정적 상황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3월 FOMC 성명의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문구 대신 들어간 것으로, 향후 금리 동결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더는 금리 인상이 없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고, 로이터통신은 "추가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우리(FOMC)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해소)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러한 관측이 대체로 맞다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

라고 금리 인하는 선을 그었다.

연준은 성명에서 "우린 목표 달성을 방해할 위험이 나타날 경우 적절하게 통화정책 기조를 조절할 준비가 돼 있다"며 "노동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기대 인플레이션, 금융 및 국제상황 등 광범위한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에도 기준금리를 동결(3.50%)하면서 미국과 22년 만에 가장 큰 금리 격차를 유지했는데,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50~1.75%포인트로 격차가 확대됐다.

그만큼 수익률을 쫓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honeybee@yna.co.kr

중환 교외아 메디컬 푸어
www.junaye.co.kr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성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팩스 해고한 스타 앵커, 칼슨 문자 열어보니... "백인우월주의 확연"

터커 칼슨 "백인이라면 그렇게 싸워서 안돼" 안티파 키즈 폭행하는 폭도들 응원하는 나 발견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미국 보수매체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였던 터커 칼슨이 과거 프로듀서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되며 그의 '백인우월주의' 성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칼슨은 폭스뉴스 대표 프로그램 '터커 칼슨 투나잇'을 이끌었던 우파 성향의 진행자로, 지난 대선 때 투표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다 회사에 거액의 명예훼손 배상 부담을 지우고 지난달 해고됐다.

NYT가 이날 보도한 200자가량의 메시지는 칼슨이 1·6 폭동 다음날인 2021년 1월 7일 오후 TV 프로듀서에게 보낸 것으로, 그에 대한 해고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에서 칼슨은 "몇주 전 한 무리의 '트럼프가이'(Trump guys)가 '안티파(극좌파) 키드(kid)'를 둘러싸고 두들겨 패는 영상을 봤다"고 밝혔다.

칼슨은 "그들은 3대 1로 싸웠는데, 그런 식의 공격은 명백하게 비열한 짓"이라며 "백인들은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순간적으로 내가 그를 때리는 폭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를 더 세게 때리고, 그를 죽이길 바랐다"고 털어놨다.

이어 "나는 그들이 아이를 다치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느낌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랐다"고 덧붙였다.

칼슨은 그러다 "이런 건 내게 좋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나는 내가 되기 싫은 사람이 되고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의 고통에 웃음 지어선 안됐다.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했다"며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보다 내가 낫다고 할 수 있겠나"고 했다.

NYT는 칼슨이 늘어놓은 이야기가 마치 양심의 위기나 동정심의 분출 등을 내비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의 인종적 이데올로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NYT는 "백인들은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문장을 언급하며 1·6 폭동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역사를 보면 칼슨이 본 영상 속 모습이



미국 폭스뉴스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자사의 대표 프로그램 '터커 칼슨 투나잇'을 이끌어온 진행자 터커 칼슨(53)과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31일 칼슨이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열린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 마지막 라운드에 참석한 모습.

정확히 '백인들이 싸워온 방식'이었다고 짚었다.

또 문자에서 칼슨은 '안티파 키드'의 생명이나 안전에 중점을 두기보다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더 신경 쓴다고 NYT는 분석했다. 그중 "내게 좋지 않다"는 표현은 그가 윤리적 정직성보다는 인종적 우월성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NYT는 설명했다.

NYT는 칼슨이 '안티파 키드'에 대

해 "그도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면서도 이 사건에 대한 본인의 태도에 있어 "해야 한다"(should)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 것도 그가 실제로는 아이의 고통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터커 칼슨은 최근 폭스뉴스에서 해고된 이후 미국 보수층의 주요 인물로 부각되고 있으며 장차 정계에 진출할 것이라는 시선도 받고 있다.

칼슨은 폭스뉴스 앵커로 있으면서

1·6 의회 폭동을 '대체로 평화로운 혼돈'이라고 두둔하는가 하면, 2020년 미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때문에 폭스뉴스는 최근 투·개표기 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7억8천750만 달러(약 1조391억원) 배상에 합의해야 했다.

acui721@yna.co.kr

보스톤코리아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대통령실 "정상회담, 안보·첨단산업 의제"...공동선언 불투명

한일 정상, 7일 소인수·확대회담 후 공동회견...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의제 포함될 듯 기사다, 日 총리로 12년 만에 현충원 참배할 듯...관저서 부부 만찬 친교 행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정이란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를 의제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4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기시다 총리 방한 첫날인 7일 소수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을 잇달아 연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기시다 총리 부부가 참석하는 만찬도 당일 한남동 관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관저로 초대함으로써 양국 관계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만찬은 통상 외국 정상에 준비했던 한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식사는 숯불 불고기, 주류는 사케를 선호하는 기시다 총리를 위한 한국식 청주 등이 각각 거론된다.

회담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12년 만의 셔틀외교'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현직 총리가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은 지난 2011년 10월 19일 방한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정확한 일정을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이틀째인 8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장과 티타임을 한 뒤 이른 오후 출국에 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는 것은 지난 3월 16~17일 윤 대통령의 방일을 통한 도쿄 정상회담 이후 53일 만이다.

한일 정상은 도쿄 회담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안보·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 한일, 한미일 간 단합된 대응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양국 과거사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입장 표명 수준도 관심사다.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전날 서울에서 2차례 회동하고 정상회담 의제 등을 협의했다.

다만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이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동 기자회견이야 하겠지만 거기서 어떤 선언이 나온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협의를 거치고 실제로 정상회담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청년·학생 교류 촉진을 위한 정상 차원의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 전망하는 별도의 정부 출연 청년기금 설립 발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청년기금과 관련, "현 시점에서 공개하기 어렵지만 일부 보도에 나온 것은 사실과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회담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외 한일 양자 차원의 과학 조

사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 정부 내 시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양국 간 의제와 관련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언론인 여러분이 국민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측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

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선을 긋는 모습이다.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MAY 5th - MAY 11th, 2023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TASTE THE CELEBRATION WITH RAMYUN TACOS ON CINCO DE MAYO!

Make this taco your own with ingredients unique to you and wow your guests with this celebration of a dish! 멕시코 명절인 싱코 데 마요를 기념하며 H 마트와 함께 퓨전음식, 라면타코를 만들어보세요!



Honey Ataulfo Mango 허니 아툴포 망고 BOX \$12.99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Malanga 말랑가 LB \$1.29	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	Korean Singo Pear 한국 싱고배 BOX \$34.99
Eddo 토란 LB \$1.49	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0.99	Ginger 생강 LB \$2.99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FOR \$3.99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8.99	Fresh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SLICED/LB \$6.99
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생 돼지 갈비 (바베큐용) LB \$2.99	Fresh Chicken Wing 생 닭 날개 LB \$2.99
Frozen Pork Single Belly for BBQ 냉동 돼지 삼겹살 (바베큐용) FAMILY PACK/LB \$6.99	Marinated Tenderized Beef Ribeye Steak 양념 별집 등심 스테이크 LB \$7.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Cooked Snow Crab 스노우 크랩 10 UP'S/LB \$12.99	Dried Regular Sliced Squid 오징어채 LB \$14.99
TONGTONGBAY Frozen Small Yellow Croaker 통통배 참조기 80-100'S 2 LB/PKG \$6.99	Louisiana Shrimp 루이지애나 자연산 왕새우 WILD CAUGHT 9-12'S/LB \$6.99
TONGTONGBAY Bok Kum Anchovy 통통배 볶음멸치 PRODUCT OF KOREA 1 LB/BOX \$14.99	Fresh Dabs 가자미 LB \$2.99

SMART CARD MEMBER ONLY

ORGANIC FARM Organic Brown Rice & Sweet Brown Rice 유기농장 유기농 현미반 현미찰쌀반 15 LB \$39.99	NONGSHIM Shin/Neoguri RAMYUN 농심 신라면/너구리 4.2 OZ X 4 EA/PKG \$3.99
HYOSUNG Roasted Seaweed 효성 도시락용 고소한 옥동자김 SESAME OIL/GREEN TEA/ GRAPE SEED OIL/OLIVE OIL 0.16 OZ X 12 EA/PKG \$3.99	HAIOREUM Korean Style Noodles - Somen 해오름 막국수 5 LB \$4.99

YECHON Korean Rice 예천 일품쌀 22 LB \$24.99	CHUNG JUNGONE O'Food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청정원 오프드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 고추장 6.6 LB \$15.99	HAIQ Premium Sesame Oil 해오름 참진한 참기름 56 FL OZ \$16.99	HAIQREUM Soy Sauce Brewed with Kelp 해오름 다시마 간장 60.87 FL OZ \$3.99	K TOWN Sliced/Tteobokki Rice Cakes 케이타운 떡국떡/떡볶이떡 2.2 LB \$2.99
SAVE PLUS Seasoned Pollock Roe 세이브 플러스 정성가득 명란젓 1 LB \$12.99	AJINOMOTO Gyoza Dumplings 아지노모토 교자 만두 SEAFOOD/CHICKEN PORK & CHICKEN/BEEF 1.54 LB \$8.99	PULMUONE Sliced Pickled Radish 풀무원 무쌈 RADISH/RADISH WITH PERILLA LEAVES 10.58 OZ \$2.99	HAIQ Canned Whelk 해오름 굴뱅이 캔 14.1 OZ \$5.99	HAITAI Baked Potato Snack 해태 구운감자 0.95 OZ X 5 EA/PKG \$3.99
ORION Custard Soft Cake 오리온 카스타드 24.33 OZ (30 EA/PKG) \$8.99	DR,CHUNGS FOOD Vegemil A /Vegemil B 정식품 담백한 베지밀 에이/달콤한 베지밀 비 6.42 FL OZ X 24 EA/PKG \$14.99	KuHAUS Air Healing Eye Massager 쿠하우스 에어 힐링 눈 마사지기 WHITE/GRAY \$39.99 \$29.99 EA	HELLO HOME Cookware Gift Set 헬로홈 쿡웨어 기프트 4종 세트 PINK \$124.99 \$89.99 SET	LG Reen Hairdye LG 리엔 흑모비채 한방 크림염색 (새치용/3회분) ALL VARIETIES \$12.99 \$6.49 EA

JINGA SIDE DISHES

Want authentic Korean? Always ready to eat Always the highest quality!

한국전통의 맛이 그리울 때는 진가 모듬반찬을 드셔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okim@bostonpremierrealty.com



팀장 한준희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jhwa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김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sh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김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kim@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kshin@bostonpremierrealty.com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다예나 김
617.217.2037
daeyeo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김
987.48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나키 박
617.447.0591
naki@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파크
617.780.702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최
978.866.5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이곤 김
617.542.5728
egon@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h@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bostonpremierrealty.com



최현민
617.877.0587
hyeon@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8975
hyeon@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401.935.3397
eunjung@bostonpremierrealty.com



리사 김
213.933.8997
lis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김
415.507.1402
miki@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순
781.892.3412
eunjung@bostonpremierrealty.com



셀비 김
781.690.4939
selby@bostonpremierrealty.com



한세욱
781.996.1214
hanseok@bostonpremierrealty.com



지민 김
617.515.1162
jiwon@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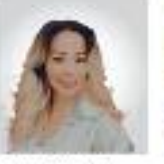
손항환
617.313.3369
sunghwan@bostonpremierrealty.com



레이미 김
617.852.7485
remy@bostonpremierrealty.com



김기태
617.721.8888
gyeo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617.224.55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미치엘 유
617.935.2713
michelle@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bostonpremierrealty.com



Song Chen
978.277.8430
song@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32.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ie
240.449.0117
lu@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20.9952
nancy@bostonpremierrealty.com



Rishi Chopra
617.897.1191
rishi@bostonpremierrealty.com



Henry Nguyen
617.868.80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bostonpremierrealty.com



Lil Wang
617.998.7212
lil@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933.818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e
978.873.6076
michael@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o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5438
jake@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현
857.280.0434
isang@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Sasha Shapiro
617.610.8795
sasha@bostonpremierrealty.com



Anthony Tran
857.208.4059
anthony@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아름다운 계절

글: 민유선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었습니다. 미사일을 자주 쏘아댄다는 북한발 뉴스를 비롯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엔 동쪽 끼리의 전쟁이, 트루키에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가공할만한 지진은 물론, 가뭄과 폭우, 폭설과 폭풍, 대형 산불까지 지구 곳곳마다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 재해 등. 오는 듯 가는 듯 '코로나 19' 전염병은 여전하여 세상을 두렵고 혼란스럽게 하였으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엔 철따라 계절의 변화가 아름다웠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이나 사물의 내용을 "아는 것 같다"라는 풀이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이 되면 겨우내 얼어 붙었던 물의 해빙과 아울러 기지개를 켜는 수많은 생명들, 부드러운 봄비를 맞으며 피어나는 연두빛 나무 잎과 꽃들의 잔치뿐 아니라

"꽃등인양 창앞에 한그루 피어오른 살구꽃 연분홍 그늘까지 사이로

작은 뗏새 하나 찾아와 무심히 놀다 가나니..." (후략)

희미한 기억 속에서나마 옛 시인이 노래한 봄의 정취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름이면 치열한 성장의지로 푸르른 엽록소 나무에 달린 여러 장의 잎 중에서 몇 장은 자신의 성장에, 또 다른 몇 장은 숲의 다른 생물을 위한 것이라니 우리 인간들도 서로 나누고 도우며 살라는 자연의 교훈이라 하겠습니까.

여름 나무 우거진 골짜기나 공원에 앉아 "푸른 명태리기"를 하는 것도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명상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벌써 서늘한 바람인가?"

더운 여름에서 곧장 추운 겨울로 가지 않고 중간에 서늘한 가을이 있음은 분명 겨울을 준비하라는 신의 관용입니다.

봄에도 가을에도 나름대로의 꽃이나 잎이 아름답기는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가을에 열리는 풍성한 열매가 귀하다는 의미에서 일까? 코스모스나 노란 국화 등 소박한 가을꽃과 울긋불긋한 단풍, 거기에 열매가 어울어진 가을빛을 일러 "勝似春光(승사춘광)" 즉, 가을 빛이 봄빛을 능가한다는 어느 철학자의 표현에 공감하게 됩니다.

열매는 그 식물 자체에게는 종족보전의 씨앗이 되는가 하면 사람에게서는 좋은 먹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여름내 푸르렀던 식물에 '안토시안'이 많이 형성되면 감이나 사과같이 붉은 열매와 잎이 나타나고 '카로티노이드'라는 물질이 많이 생기면 은행잎이나 달콤한 과일인 배처럼 노란색 계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문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단조로운 갈색 단풍이 많았던 예년에 비하여 붉은 색과 노란 단풍이 유난히 선명한 2022년 가을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빛깔의 향연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먼 산으로 단풍구경을 떠나고 홀로 남은 나는 뒤뜰에서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랠 수 밖에 없었습니다만, 아쉬운 것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수년 전에 겪은 뇌경색의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내게는 여러모로 배려해 주는 친절한 이웃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한인신문에 연재되는 나의 글을 읽는 재미가 쏠쏠하시다는 이든이 할머니도, 황송하게도 늘 나를 "작가님"이라고 불러 주시는 어르신도, 나의 글에는 깊이가 적다고 평가하시는 어른도 나에게서는 썩 독자가 되기에 그분들이 들려주는 어떤 음성이라도 나에게서는 더 좋은 글을 쓰라는 격려가 되어 왔습니다.

남이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 좋은 음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숨겨 좋은 권사님이 나누어 주시는 음식은 나의 기력을 회복해 주는 보약이 되었으며, 만날 때마다 자신의 큰 형님을 본 듯이 반기시는 교회 어른의 미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던가!

연세 많으신 전직 교사님께서 전해 주시는 유익한 글이나 음악, 때로는 잘 구운 계란 몇 알도 내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숲 속에 숨어 있는 집들이 외로움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수수 떨어져 뒹구는 낙엽이 슬픔이 아니라 결실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후략. 이금자 시인)

시 쓰는 친구의 의미 깊은 시어(詩語)에서 받는 가슴 울리는 감동 역시 내게는 치유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 뿐이 아니지요. 더운 날씨에도 나의 불편한 거동을 부축해 주시던 노란 모자 쓴 권사님의 친절을 내 어찌 잊으리요!

봄, 여름 지나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 겨울

과 함께 어김없이 연말이 될 텐데 나는 그분들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넘치는 사랑에 이해가 가기 전에 보답하고 싶은 나의 소망은 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무엇이던지 간절히 원하면 하늘이 도와주신다고 하던가. 즉, "사람이 하는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경전 말씀처럼 어느 날 바람 쏘이러 나갔던 남편이 두손 가득 알밤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두어해 전에 그로서리에서 사다 먹던 밤 몇 통을 뒷마당 한켠에 묻었는데 그것이 어느 틈에 싹을 틔어 올리는 밤이 제법 많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크고 싱싱한 알밤을 보자 나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돈 주고 가게에서 사오는 밤보다 크고 싱싱한 그 밤들은 내가 사랑의 빛을 진 어르신들에게 무엇보다 좋은 선물이 되리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비교적 넓은 터전으로 이사 와서부터 복숭아나 사과 묘목 등 몇가지 과일나무를 심어 보았지만 번번히 실패, 아마 이곳 토양이 맞지 않나 보다는 생각으로 창가에 앉아 한탄만 하고 있는 동안 마당 한구석에서 조용히 알밤을 키우신 하나님 -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나의 어머니

과수원에 사과가 익어가는 가을이 되면 어머니께서는 늘 사과를 꺾으셨습니다. 사과 짬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요. 저는 짬이 완성되기 전 물 속에서 끓고 있는 사과 쪽 먹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어느 때는 짬이 될 사과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먹어버리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과 물'이라는 새로운 요리 이름을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을 정해진 틀로 보지 않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어머니였지요.

어느 해 봄, 어머니께서 참가하시는 주부 백일장에 따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의 소도시에서 미리 참가 신청을 한 후 기차를 타고 당도한 서울, 햇살에 빛나는 신록 사이

사이에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고궁의 잔디밭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고 계신 어머니와 많은 주부들의 모습이 제 평생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음은 자기 개발에 열정이 충만한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대한적십자사에서 근무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주부들로 구성된 봉사단에서 떡을 해가지고 군부대 위문 행사를 하기도 했지요. 어머니께서는 당시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저와 저의 친구들을 모아서 작은 공연을 계획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괴리불기와 무용으로 강원도 산골의 군인장병들 앞에서 공연을 하였는데 위문 받는 군인 아저씨들보다 공연하는 우리들이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역시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갖고 계신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과 한국으로 떨어져 지내던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요즘, 이런저런 옛 기억들이 새로운 인생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언제까지나 젊고 예쁠 것 같던 어머니의 얼굴에서 70여 년 연륜의 주름을 보며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한 여인을 실감하게 되는 오늘날입니다. 어머니는 참 강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강하게 살고 계시구요! 그러한 어머니의 딸인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수년간,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몸이 아파 쓰러졌을 때에도 일주일마다 뉴잉글랜드 한

인회보에 글을 써 오신 어머니의 의지에 존경심을 드립니다.

먼 곳에서 인터넷으로 어머니의 글을 읽으며 마음으로 공감과 사랑을 느끼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한 권의 책으로 간직하게 되니 더욱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가을 큰딸 정의정



수잔리 부동산

“수잔 부동산은 미국 최고 부동산 회사 Keller Williams Group과 팀워크로 전문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소중히 합니다. 오랜 부동산 거래 경험과 다양한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 투자,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합니다.”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수잔리 부동산 대표

MA Licensed Realtor
CEO, The Pro Realty Group
CEO, 조지아 Keller Williams 수잔리 부동산

NAR(미 전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GBAR(보스톤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MAR(조지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Multi Million Dollar Producer



CLHMS
Certified Luxury Home Marketing Specialist
럭셔리 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ABR
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공인 바이어 전문가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Website: findhomesinma.net
245 First St. Cambridge, MA 02124





이 광고를 보는 한국연변은행지단의
정부라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발사되었습니다.



한국연변은행지단
Korea First Foundation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인 김규권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성양주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THE PRESBYTERY OF ANGLICAN COMMUNION

하느님에 대하여,
권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식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식사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45 Ash St, Newton MA 02456 / 617-668-2711
stadparish@gmail.com / stb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b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를 노려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핸디맨 앤디

HANNDYMAN ANDY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Dry Cleaners for Sale

<p>세탁소 매매 385K Charlestown, Boston 연매상 479K</p>	<p>세탁소 매매 2Million 부동산포함 Charlestown, Boston 연매상 479K</p>
<p>Watertown 연매상 350K</p>	

781.883.5984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MAY 4TH- MAY 11TH, 2023



Paik's Braised Mackerel Meal Kit

백종원의 추억의 고등어 조림 16.9 OZ

~~REG. \$11.99~~

\$5.99



Kwangdong

MAY 4TH- MAY 11TH, 2023

Vita 500 Vitamin-C Drink

광동제약 비타 500 비타민-C 드링크

\$9.99

100 ML X
20 BTLS/BOX

Same price.
Double the bottles!!

~~REG. \$14.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35) 개별 기업 투자의 실패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주식 열풍으로 이어지며 테슬라, GameStop, 넷플릭스, 줌, 등 개별적인 기업 투자로 순식간에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끊임없었다. 속담에서 말하듯 '사촌이 땅을 사면 열마나 배가아픈일' 인가? 주위 여기저기에서 주식투자자로 돈 벌었다는 무용담을 듣고 본인만 대박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고민 끝에 주식 투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첫 번째 난관인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가에 고심한다. 주식 종목 선택은 대부분 주위 친지에게 문의하고 열심히 인터넷 등을 찾아서 결정한다. 종목 대부분은 요즘 화제가 되고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회사를 선택해서 투자한다. 상승하는 주식시장에선 어디에 투자해도 투자돈이 불어나지만, 몇 종목의 특정한 회사를 선택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투자자는 인식하지 못한다. 제프리 웨스트(Geoffrey West)의 책

(Scale: The universal laws of growth, innovation, sustainability, and the pace of life in organisms, cities, economies, and companies)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용한다. *1950-2009년 동안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던 기업이 28,853이었다. 2009년 말에 가서 22,469 기업 즉 약 80% 기업이 사라졌다. *했수로 30년 지나면 약 5% 정도만 기업이 생존한다. *5년 된 기업이 6년이 되었을 때 망하는 것과 50년 된 기업이 51년 되었을 때 망하는 확률이 같다. 즉 오래된 기업이라고 생존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미국 기업이 생존하는 평균 기간은 약 10.5년에 불과하다. *1955년 포천 500대 기업에 등록되었던 기업이 생존한 확률은 단 12%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투자하면 테슬라 주식 투자이다. 전기차 산업의 선두에 있기에 온갖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세월이 지

난 후 한 회사가 어떤 상황으로 변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1920년대 자동차 회사가 약 3,000개 존재했었지만, 현재 남아있는 회사는 포드와 지엠뿐이다. 전기차 생산은 현재 전 세계 모든 자동차회사는 주력하고 있음을 투자자는 기억해야 한다. 최근 167년 역사의 기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소식(Credit Suisse's shareholders let out their anger, Patricia Kowsmann, WSJ, April 5, 2023)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주식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주위에 투자 종목을 추천하며 투자로 돈 벌었다는 친지는 주식 전문가라고 말하기 어렵다. 주식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투자자로부터 투자돈을 모아서 유망한 회사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펀드 매니저는 속된 말로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투자하고자 한다. 주식 정보나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나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다. 그런데

이런 투자 전문가조차도 85%가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보다도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주식을 사고판다고 해서 주식투자자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것은 투자자 아니라 투기가 될 수 있다. 즉 도박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도박은 시간이 갈수록 자산이 적어지지만, 제대로 하는 투자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확률이 높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 탑 10%인 부자들이 주식시장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다. 주식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사람도 많고 주식 대박 종목을 꼽아주는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도 많이 있다. 금융업계도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고 열심히 부추긴다. 주식 정보도 넘쳐난다. 그러나 주위에 떠도는 주식정보와 대중 심리에 의한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 매우 높다는 사실을 투자자는 잊어서는 안 된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32세 풍월주風月主 신공信功(19)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방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물론 그 사이의 기록물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단 두 차례의 순례를 삼국유사가 모두 기록했다고 볼 수는 없기에 그렇게 추정해 본다). 그럼 금란은 어디인가? 금란은 현재 강원도 통천인데, 동국(東國) 제일의 선경(仙境) (신선이 노니는 지방)으로 총석정, 금란산, 금란굴 등이 소재한 해안지대이다. 즉 금강산에서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일대를 말한다. 그리고 국선 요원랑 등은 화랑 출신인 경문왕을 위하여 그의 차곡을 찬양하는 노래 3수를 지어 불렀다. 다시 사지(舍知) (13등급) 심필을 시켜서 이를 향가의 작가로 명성이 높았던 대구화상에게 보내 곡을 붙이게 하였다. 즉 작사/작시는 요원랑 등의 화랑들이 하였고 작곡은 대구화상이 하였다. 아쉽게도 그 가사는 전하지 않지만 제목은 전하고 있다. 그들이 현금포곡(玄琴抱曲, 대도곡(大道曲, 문군곡(文君曲)이다. 한편 삼국사기의 기록에 보면 제51대 진성여왕(경문왕의 딸 김만금(金曼)이다)이 향가 모음집인 삼대목(三代目)을 대구화상과 김위흥에게 편찬하도록 하였다. 삼대목은 현존하지 않아 어떤 향가가 실렸는지 알 수 없다. 대구화상은 승려였고 김위흥은 경문왕의 친동생이다. 김위흥의 정처 부호부인이 진성여왕의 유모였고, 위흥은 후일 질녀인 진성여왕과 상통하기도 하였다(단지 근친상간을 벌인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당시는 골품제의 특성상 근친혼은 일상사였다. 즉 당시의 시대상을 알면

특이하거나 불륜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였다). 경문왕의 치세 후반에는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870년에는 왕도(王都)에 지진, 홍수가 일어났고 그해 겨울에는 역병이 돌아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다. 재해의 복구나 역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틈도 없이, 873년에는 기쁨으로 인한 기아가 덮쳐, 비축했던 곡물을 모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백성들을 구제하지 못하였고, 게다가 또 한 차례의 역병으로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와 함께 살아야 했으니 국정은 안정될 여유를 갖지 못했다. 불행하게도 경문왕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의 삶은 곤고하였다. 늘 뱀(들)과 잠을 자고 귀가 커서 백성들의 말을 잘 들었던(?) 경문왕은 29세(또는 3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였다. 경문왕을 이어 866년에 태자, 즉 왕의 장남 김정(金暉)이 즉위하였다. 김정이 제49대 현강왕이다. 현강왕대의 기록을 보면 아버지 경문왕 재위시와는 상이하게 최소한 왕도인 서라벌 일대는 태평성대를 누린 것 같다. 먼저 삼국사기(현강왕 본기)의 기록을 보면, <어느날 왕은 월상루에 올라가 민가를 바라보면서 시중 민공에게 묻기를, "내가 듣건대 지금 민간에서는 짚이 아닌 기와로 지붕을 덮고, 나무가 아닌 솥으로 밥을 짓는다 하니 과연 그러한가?"

이에 민공은 "저도 일찍이 그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왕께서 즉위하신 이후로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바람과 비가 순조로워서 해마다 풍년이 들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넉넉하며, 변경이 안정되고, 시정이 즐거워하니, 이는 임금의 어진 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왕은 이에 즐거워하며 "이는 여러 신하들의 도움 때문이지, 짐에게 무슨 덕이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또한 삼국유사에도 태평성대를 입증하는 기록이 있다. <제49대 현강왕 때는 성 안에 초가집은 하나도 없고, 집의 처마와 담이 이웃과 서로 연해 있었다. 또 노랫소리와 피리 부는 소리가 길거리에 가득 차서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 현강왕은 11년간 재위하였다. 제48대 경문왕 재위시는 모든 천재지변과 역병에다 역모까지 여러차례 일어났는데, 현강왕 재위 동안에는 태평성대처럼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현강왕이 죽은 뒤 1년 후에 즉위한 제51대 진성여왕 시대에는 세금이 걷히지 않아 조정이 곤궁해졌다는 기록으로 보아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역사의 기록을 그대로 믿기로 한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다음은 경문왕을 도와 정치를 보좌하고, 전국을 유람하면서 왕의 업적을 노래로 찬양(讚揚/홍보)한 화랑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요원랑과 예현랑이 대표적이다. 먼저 삼국유사(기이 제2, 경문대왕, 화랑들이 노래를 짓다)에 실린 내용을 인용해보면, <국선(國仙) 요원랑(邀元郎, 예현랑(譽顯郎, 계원(桂元), 숙종(叔宗) 등이 금란(金蘭)을 유람할 때 근근히 임금을 도와 나라를 다스릴 뜻이 있었다. 이에 노래 세 수를 짓고, 심필(心弼) 사지(舍知)를 시켜 침권(針券)을 주어 대구화상(大矩和尚)의 거처에 보내 세 가지 곡을 짓게 하니 첫째가 현금포곡(玄琴抱曲)이고, 둘째가 대도곡(大道曲)이며, 셋째는 문군곡(文君曲)이었다. 들어가 왕에게 아뢰니, 왕은 크게 기뻐하여 칭찬했다. 노래는 알 수 없다.) 국선 부레랑이 693년(효소왕2년)에 안상 등 1,000여명의 화랑들을 이끌고 전국을 순례할 때도 금란을 다녀왔다. 국선 요원랑 등의 화랑들이 경문왕 재위시에도 금란을 순례하였다. 제48대 경문왕은 861년에 즉위하여 875년까지 재위하였다. 이 기록으로 보아 금란은 화랑도들의 정기순례지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presents the 24th annual

POLITICAL INTERNSHIP FUNDRAISER

May 20, 2023 | 5-9PM

Four Points by Sheraton Boston Newton (Charles Ballroom)
320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58



With remarks by State Representative Erika Uytterhoeven and Congressman Andy Kim



RSVP via Eventbrite by scanning QR code or
visiting <https://2023PIFD.eventbrite.com>

Dinner will be provided. Come join us in celebration with
entertainment by local Korean performers and raffle drawings!
Limited seating available - RSVP ASAP!

Sponsored by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nd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oston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New Construction Warranties

누구든지 새 집을 좋아한다. 특히 내 경험에는 동양 사람들이 많이 새 집을 선호 한다. 새집이면 아무도 살아 보지 않은 집이기 때문에 뭐가 되고 안 되고가 확인이 안 된다. 물론 오늘 되다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살았다면 기본적인 건 다 되는 게 이치다. 오늘은 한국분들이 좋아하시는 새 집을 샀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이야기 해 보겠다.

새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옵션이 있다. 흔히 새 집을 짓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큰 회사에서 짓는 단지형 새 집을 찾던지 집 짓는 개인이 빈땅이나 오래된 집을 사서 헐고 짓는 두가지 상황을 찾을 수 있다. 두 케이스 다 아직 집을 짓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조금씩에 월래 예정해 두었던 plan 보다는 조정이 가능하다. Lot size에 따라 처음부터 타운에 요청해 두었던 plan이 이미 있었을 것이다. 만약 없다면 이 집은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 수 있다. 허가를 하나도 안 받았다는 이야기이다. 짓는 타운마다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다

르므로 시작하기 전에 언제 집이 되는지를 정확히 확인 하는 게 중요하다. 집 짓는 쪽에서는 얼렁 지어서 빨리 팔고 싶겠지만 타운마다 밀려 있는 허가가 있고 일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 하다. 그랬다면 뭐가 쉽게 변경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Cosmetic 은 바뀌기가 쉽다. 예를 들어 Carpet 을 Hardwood Floor로 벽 색깔을 어두운 부 cabinet을 밝은 색으로 등등이 있다. 특히 Appliances 종류는 쉽게 바뀔 수 있는 종목이다. 바뀌기 어려운 종목은 위치이다. 예를 들어 화장실 위치와 방의 위치를 바꾼다는 건 다시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고 다시 그 려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는 답이 맞다. 그럼 집이 다 지어진 후에 일을 알아보자. 대부분에 새집은 1년 warranty가 따라 온다. 대부분 sub-contractor들이 주는 것인데 여기서 sub-contractor란 바닥을 전문으로 하

는 업체는 집 짓는 contractor에게 하이어가 되어서 바닥 할 것이고 부 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부 만 한다. 여기서 아주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대부분에 바이어들이 warranty 하면 뭐든지 다 1년동안은 고쳐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큰 실수다. Warranty 내용이 다 다르므로 상세히 잘 읽어 보아야 한다.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린다면 써서 오래 된 부분은 warranty에 포함이 안 된다. 벽에 색깔이 스크레치가 됐다 이 건 warranty에 포함이 안 된다. 에어컨디션이 안 된다 이 건 대부분 된다고 봐야 하지만 실수로 고장을 냈다면 말은 달라진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다 알기란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알기가 쉽지 않다. 나의 경험으로 꼭 알려 드리고 싶은 New Construction에 노하우는 꼭 침실마다 lighting을 천장에 해 달라는 말은 처음부터 하시길 바란다. 집을 처음에 지을 때 하는 건 거의 해 주지만 나중에 본인이 하려고 하면 돈이 든다.

미국집들이 많이 천장에 lighting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왜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처음부터 lighting을 다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데 말이다. Warranty Document은 클로징 전에 꼭 받아야 한다. 없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5월 7일 - 5월 13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p> <p>●운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금전: 한다고 했는데 노력한 것과 비교해서 결과가 적어 적잖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니 다음을 기약하고 용기를 내세요. ●애정: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이 꼬리를 물고 따라 다닙니다. 빨리 생각을 바꿔보세요. 96, 84, 72, 60, 48, 36년생은 7, 10일 길일, 9, 12일 주의.</p>	<p>소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p> <p>●운수: 소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둘이서 의논하면 더 좋은 답을 얻게 됩니다. ●금전: 금전운이 좋은 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손조롭게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애정: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이 훌가분해지는 때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관계도 좋아집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7, 11일 길일, 10, 13일 주의.</p>	<p>범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p> <p>●운수: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세요. 자식이 하는 잘못은 고스란히 부모가 지고 가야 할 몫이 됩니다. ●금전: 자신이 지금 힘들 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 금방 무너질 모래성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애정: 한쪽에서는 하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 하지 말라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9, 12일 길일, 8, 11일 주의.</p>
<p>토끼띠 가슴에 단비가 내리는</p> <p>●운수: 이렇까 저렇까 결정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결정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편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금전: 가슴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절실하게 필요한 때에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끌어오던 매매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애정: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상대에게 끌리는 감정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8, 13일 길일, 10, 12일 주의.</p>	<p>용띠 자신감이 샘솟는</p> <p>●운수: 머리가 맑아지고 몸 상태가 좋아집니다.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샘솟는 때입니다. ●금전: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고급정보도 얻게 될 것입니다. ●애정: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쌓였던 장벽을 한순간에 다 허물어트릴 수 있을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8, 10일 길일, 7, 11일 주의.</p>	<p>뱀띠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p> <p>●운수: 여기서 멈춰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야 하나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던 길을 멈추고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금전: 돈은 들어오나 나가는 것이 많으니 모으기가 어렵겠습니다. ●애정: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 되기 쉽습니다. 당장은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7, 12일 길일, 8, 11일 주의.</p>
<p>말띠 조금씩 회복되고</p> <p>●운수: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일이 해결될 수 있으니 미리 앞서서 걱정하지 마세요. ●금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은 유통이 될 것입니다. ●애정: 명쾌해지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더는 미루지 말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8, 13일 길일, 7, 9일 주의.</p>	<p>양띠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보아야</p> <p>●운수: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잡고 있으면 힘이 들지만, 손에서 내려놓는 순간에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금전: 전혀 조금씩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의 흐름을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보아야 하겠습니까. ●애정: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다고 해서 시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게 생긴 불안감으로 밤잠을 못 이룰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9, 12일 길일, 7, 10일 주의.</p>	<p>원숭이띠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p> <p>●운수: 무작정 답을 기다리고 있자니 답답해집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금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머릿속으로 계산한 것과 돌아오는 결과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애정: 이제는 더 갈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때입니다. 오랜 세월 참았던 인내심이 바닥이 드러나고 한계점에 다다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0, 13일 길일, 8, 11일 주의.</p>
<p>닭띠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p> <p>●운수: 어디를 가든지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 하겠습니까.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원가 구매할 계획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노릴 만합니다. 원하던 것을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마땅하고 좋은 상대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드디어 인연의 짝이 나타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7, 10일 길일, 9, 12일 주의.</p>	<p>개띠 삶에 밀거름이 된다는 것을</p> <p>●운수: 상황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전: 이런저런 제의가 들어오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동업이나 사업투자에 대한 제의도 들어옵니다. ●애정: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세요. 자신을 빛나게 하고 앞으로의 삶에 밀거름이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8, 12일 길일, 10, 13일 주의.</p>	<p>돼지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p> <p>●운수: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은 잡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 막연히 어떻게 잘 되겠지 믿고 기다리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애정: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정반대의 생각을 하거나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9, 13일 길일, 8, 11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38년 운영한 세탁소 판매
은퇴위해 매매 합니다.
Tel 617-304-1388

3/10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2/3

덴탈 랩 매매합니다.
Tel 508-215-9122

1/20

베벌리 타운 피자 가게 직원 급구함
캐시어 등 모든 포지션 직원
경험자 우대, 무 경험자 환영
영어 가능자 선호
617-251-1120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구미호던 1938' 이동욱 "전편만 못하면 할 이유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작보다 더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만족하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봅니다. 감독님하고도 그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전작보다 재미가 없으면 하는 이유가 없지 않냐는 전제가 항상 있었어요."

오는 6일 첫 방송을 앞둔 tvN의 새 주말드라마 '구미호던 1938'에서 전작에 이어 주인공 이연 역할을 맡은 배우 이동욱은 3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자신감을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다.

'구미호던 1938'은 구미호 이연이 1938년으로 시간 여행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판타지 액션극이다.

이동욱과 김범이 연기하는 이연과 이랑 형제가 전작에 이어 출연하고, 전직 산신이라는 설정을 가진 류흥주와 천무영 역할에 배우 김소연과 류경수가 합류했다.

이동욱은 "전작에서 함께했던 액션팀과 꾸준히 호흡을 맞췄다"며 "배경이 달라지면서 무기나 상황도 다양해진 만큼 액션을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우 김소연은 "대본을 받고 흥주의 매력에 끌렸다"며 "양큼하고 귀엽기도 하고 아주 매력 많은 캐릭터"라고 평가했다.

전작에 이어 연출을 맡은 강신호 PD는 "시즌1이 이연의 개인적 감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았다면 이번 드라마는 이연이 사랑을 택하려 포기하고 소홀히 했던 것들에 초점을 맞춰 마음의 빛을 갈아가는 과정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전작인 '구미호던'은 남성 구미호라는

신선한 설정과 토착신, 토종 요괴 등 설화 속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점이 높게 평가받아 최고 5.8%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jaeh@yna.co.kr

르세라핌, 발매 첫날 102만장...K팝 걸그룹 최고 판매량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르세라핌의 정규 1집 '언포기븐'(UN-FORGIVEN)이 발매 당일엔 한터차트 기준 100만장이 넘게 팔려나가면서 K팝 걸그룹 첫날 판매량 신기록을 썼다.

르세라핌은 걸그룹 타이틀곡으로는 보기 드물게 '역경에 맞서는 연대'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들고 나와 음반과 음원을 모두 흥행시키는데 성공했다.

3일 가요계에 따르면 '언포기븐'은 발매 일인 전날 102만4천34장이 팔려나갔다. 이는 블랙핑크가 지난해 2집 '본 핑크'(Bom Pink)로 기록한 종전의 걸그룹 최고 판매량 101만여장을 웃도는 신기록이다.

동명의 타이틀곡 '언포기븐'은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톱 100' 차트 3위와 스포티파이 글로벌 '일간 톱 송' 7위에도 올랐다.

'언포기븐'은 타인의 평가에 개의치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각오를 담은 노래다. 자신의 선택으로 타인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이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도 않겠다는 의지를 녹여냈다.

미국 서부 영화 '석양의 무법자' 메인 테



마 OST를 샘플링하고,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이자 음악 프로듀서인 나일 로저스가 기타 연주에 참여하는 등 음악에 공을 들였다.

르세라핌은 특히 역경을 극복하는 해법으로 '나랑 저 너머 같이 가자'며 '연대'를 제시했다. 이 부분에서 다섯 멤버가 손을 맞잡고 반짝 들어 올리는 안무를 보여줌으로써 메시지를 시각적으로도 극대화했다.

걸그룹 가사에서 '사랑'이 빠진 현상은

드물지 않지만 당당한 혹은 주체적인 '나'를 넘어 '우리'로까지 시야를 넓힌 점이 눈에 띈다.

멤버 허윤진은 지난 1일 신보 발매 쇼케이스에서 "우리가 데뷔 때에도 친했는데, 1년 사이에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사이가 좋아지고 끈끈해졌다"며 "1년을 뒤 돌아보면 멤버들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다"고 동료 사이의 끈끈한 유대를 과시했다.

tsl@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인덕(人德)과 인덕(仁德)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덕(人德)과 인덕(仁德)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거의 비슷하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귄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는 복을 말한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은 인복이 있다 없다 아니면 인덕이 있다 없다 말하곤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서 인복과 인덕이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변의 내 가족과도 편안하게 지내는 이가 있는 가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나 자신의 문제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탓으로 돌릴 문제인가. 그것은 삶의 어려운 숙제거리이다.

인덕이란 남이 아닌 나 자신의 처세에 따른 문제란 생각을 한다. 그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밖에 있지 않으며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까닭이다. 인덕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어떤 일과 사물에 대해서 객관성을 찾지 못해 일을 그르칠 때가 있다. 그것은 너무나 주관적인 자신에 몰입해 어떤 일이나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속에 깊이 빠져있기에 그렇다. 이렇듯

우리는 관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각도에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가 따라 자신의 처신의 입지가 세워지는 것이다.

서로 만나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금방 알게 된다. 그것은 언어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몸짓에서 이미 그 사람의 사고를 엿볼 수 있는 까닭이다. 현재는 지금이 아니다. 현재는 과거를 관통한 미래를 일컫는 까닭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굳이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아니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라든가 과거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친하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이 들려주지 않는 그 사람의 것을 굳이 알고 싶어 이리 캐고 저리 캐보려 애쓰지 말아야 할 것이 예의이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인덕(仁德)을 쌓는 덕목 중의 제일이다.

살면서 겪는 일이지만, 남에게 늘 베풀기 좋아하고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런데 그렇게 베풀고 나눈 만큼의 결과가 좋아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때를 만난다. 그 결과의 몫은 무엇이였을까. 무엇인가 댓가를 바라고 한 일은 더욱이 아니었을 터 자신은 가슴을 치며 인복이 없고 인덕이 없

다고 한탄하는 모습을 하는 것이다. 정말 인복이 없고 인덕이 없었던 것일까 말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분명 처음의 인복(人福)과 인덕(人德)은 있었기에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의 인덕(仁德)은 참지 못함에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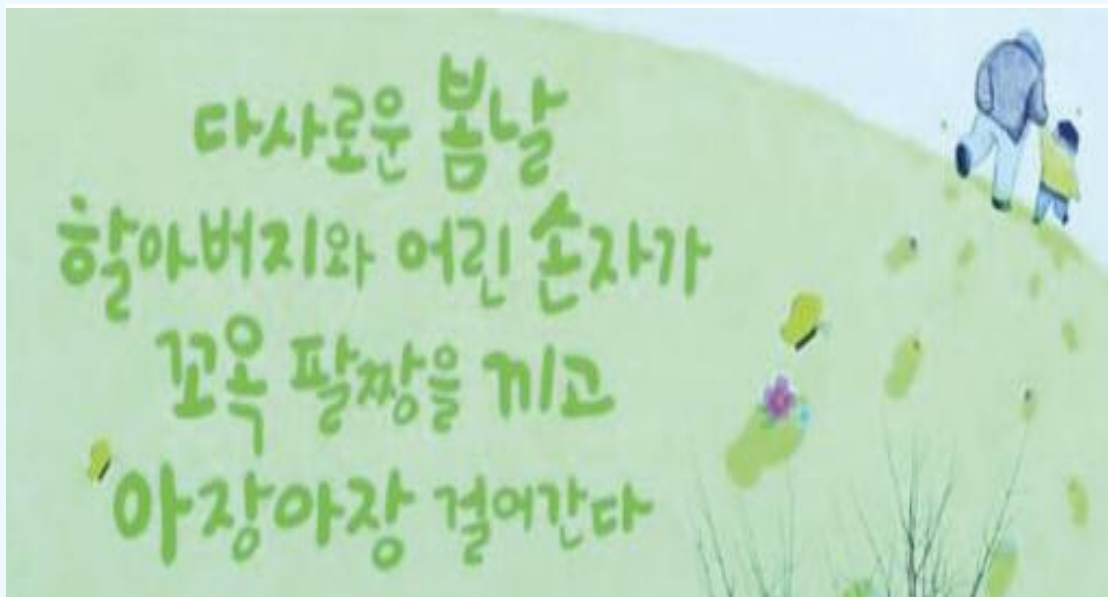
인복(人福)과 인덕(人德)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는 복이라면 그와 마찬가지로 내 것을 나눌 사람이 많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렇지만, 인덕(仁德)은 그 많은 사람들의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생각을 한다. 하늘에서 똑같이 내려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해 보자.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 비유'를 들어 보자. 결과는 모두가 각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나는 인복이 있네! 없네하고 인덕이 있네! 없네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의 삶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밖에서 남이 가져다준 것이 아니다.

공자의 말씀을 들어 보자. 인덕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인가? 내가 어질고자 하면, 어짐에 이르느니라. 仁遠乎哉 我欲仁斯仁至矣(인원호재 아욕인사인지의)라고 하였다. 바

로 답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이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 우리네 삶의 여정에서 인덕(人德)과 인복(人福)이 있고 없음과 인덕(仁德)이 있고 없음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이다. 그렇다, 특별히 인덕(仁德)이란 쉬운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것은 마음에서 오랜 견딜과 기다림 그 후에 오는 참 인내의 열매라는 것이다.

옛 말씀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지 않던가. 그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든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일 게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사물이 되었던 간에 자신이 먼저 노력하라는 말씀이라 여겨진다. 오늘을 열심과 성실로 살다 보면 내일의 오늘에 감사하며 만족할 것이고 그 내일의 오늘에 또다시 오늘의 어제가 되어 나를 든든하고 굳건한 터를 만들 디딤돌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 있어 지난 과거의 어제도 중요하거니와 미래의 내일이 있어 오늘이 더욱 희망에 차 있지 않은가. 오늘에 나는 어떤 인덕(人德)과 인덕(仁德)의 돌탑을 쌓을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화양연화花樣年華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국 법무부장관 이야기이다. 그의 패션 감각이 화제인데 옷차림새가 발군이라는 거다. 어디 그 뿐이라. 논리에 앞서서 그의 말씀씨와 언변이 탁월하다고 했다. 호쾌한 답변일진대 명언을 쏟아낸다고도 했다.

그가 국회에서 답변할 적이다. 화양연화花樣年華란 말을 인용했다. 뜬금없다 싶었는데, 뜻만 가져다 쓴 거다. 그가 평검사로 일할 적이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다 하던가.

화양연화花樣年華. 귀에 익지 않은 말이다. 주윤발이 주연인 흥콩영화 제목인가 했다. 그런데 엄연히 뜻이 있는 사자성어이다.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이란 다.

이십여전 일게다. 화양연화는 한국에서도 상영된 영화의 제목이다. In the Mood for Love. 직역은 아니다만 그럴싸하다. 나역시 본적이 있다. 양조위와 장만옥이 주연으로 나왔다.

하마나 기다렸다. 아름답고 찬

란한 보스톤의 봄을 말이다. 목련과 벚꽃과 개나리를 보기 원했던 거다. 정녕 봄이 왔다는 징표일터. 아니나 다를까만 올봄엔 4월 13일에 핀것을 보았다. 전날까지도 필동말동 하더니, 피었던 거다. 한치도 어김 없었다만, 만개한 모습은 아니었다. 기상이변인가?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하나.

올봄 광화문 글판이다. 시인 김선태의 단짠이란다. 글판 그림에선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는 손자의 모습이 따뜻하다. 어린 손자

도 곧 자라 찬란하고 화려한 청년기를 맞을 것이다. 그땐 할아버지 손을 잡아 줄 것인가.

다사로운 봄날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가 꼬옥 팔짱을 끼고 아장아장 걸어간다 (광화문 글판, 김선태 단짠 중에서)

당신이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은 언제인가. 삶이 꽃이 되

는 시절이 언제인가 하는 질문이다. 어제였을까. 아니면 오늘일 수도 있겠다만, 내일이 될 수도 있겠다.

봄이 깊어간다. 연이어 꽃들이 피고 푸르름이 텐데, 정녕 화양연화 될게다. 그러나 화려한 시절은 간다. 푸르름이 압도할텐데 화려한 시절은 가고, 푸르른 계절이 오는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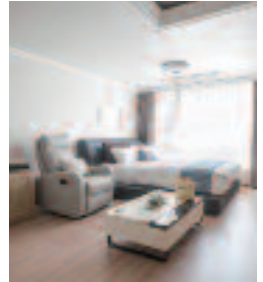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구나 (아가 2:13)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등등

=>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골정술, 힌다리고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등등

=>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I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연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협력업체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아임병원 안과>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라섹 등 눈수술, 무더운 여름철에 실시하면 위험하다?



아임병원 안과 이 응석원장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아임병원 안과 이 응석원장의 도움을 받아 무더운 여름철에 눈수술을 시행해도 괜찮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여름철이 되면 비교적 긴 여름방학이나 여름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라식이나 라섹 시력교정술이나 백내장수술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지만 무더운 여름에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술 부위의 감염이나 염증을 걱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라식, 라섹 등의 시력교정술이나 백내장 등 눈수술은 수술 전 다양하게 알아보고 충분한 검사를 통하여 최종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눈 수술 케이스를 보유한 병원에서 수술 후 철저한 사후관리만 이뤄진다면 여름철에도 감염 우려 없이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다.

우선은 각 수술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라식수술은 각막 절편을 만들어 레이저로 필요한 만큼의 두께를 절삭한 후 다시 덮는 방식이다. 수술 후 보통 다음날부터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회복이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제 수술 과정은 각막 절편이라는 구조물을 만들어 찢힌 후에 시력이 저하된 만큼 레이저를 이용하여 교정한다. 그다음 벗겨낸 각막 절편을 원래 상태로 다시 덮어준다. 각막 절편을 만들 시 예전에는 미세각막절삭기로 만들었으나 위생, 안전과 부작용 문제로 요즘에는 펄토세컨레이저로 각막 절편을 만드는 올레이저 라식으로 진행이 된다.

라섹 수술은 각막 상피를 제거하고 각막실질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벗겨 낸 상피 조직이 재생되는 동안 약 3~4일간의 통증이 있어 휴식기간이 필요하지만, 각막절편으로 인한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대신 삽입하는 수술이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주로 사용하며, 눈부심, 시야 흐림 등은 물론 근시, 난시, 원시 증상에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식, 라섹, 백내장 등 안과 눈수술은 여름뿐만 아니라 계절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여름철 더위와 눈 수술 사이에 기본적으로 큰 연관성은 없으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계절에 따른 영향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계절의 영향보다는 철저한 사전 검사로 개인별 시력과 각막의 두께, 동공크기, 증상정도 등을 정확히 파악해 맞춤 수술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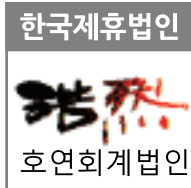
따라서 담당 의료진이 풍부한 수술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안과 전문의인지, 해당 병원이 첨단 검사장비 및 수술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철저한 멸균 시스템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여름철 눈수술”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담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더 많은 가족 모임을 위해 최신 COVID 백신을 접종하세요.

이제 최신 백신이 기존 COVID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으로부터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홀리데이 기간에 맞춰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최신 백신을 무료로 예약하세요.

[vaccines.gov](https://www.vaccines.gov)에서 최신 COVID 백신을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볼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전상품 1년 약정

\$39.99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1) 2023년도 뉴잉글랜드지역 어린이 글짓기 & 손글씨 대회 안내

- * 일시 및 장소: 2023년 5월 13일(토)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강당 및 교실
- * 참가 신청: 글짓기 또는 손글씨 대회 중 1개만 선택/마감일: 2023년 4월 30일(일요일)
- * 참가비/1인: \$10(회원 학교 학생) \$15(비회원교/개인 참가)
- * 보내실 주소: 참가비는 학교단위로 보내시고 NAKS-NE Chapter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Sang Kang
P.O. Box 337
Billerica, MA 01821
- * 참가자격: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한글학교 재학생 (Pre-Kinder~12학년)
- * 시상 → Pre Kinder부터 12학년까지의 학년별로 시상
 - ↓ Pre-Kinder는 참가자 전원 시상
 - ↓ Kinder-12학년: 각 그룹별로 대상, 금, 은, 동, 입선상
 - ↓ 6-12학년 대상 중 최우수 학생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NE협의회 회장상
 - ↓ PK-5학년 대상 중 최우수 학생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NE협의회 이사장상
 - ↓ 각 학년 대상은 단체장상으로 시상함
- * 감독/심사위원: 회원교에서 추천한 교사
- * 감독/심사위원 배정: 각 학년별 심사위원 2-3명, 감독교사 2명
- * 글짓기 및 손 글씨 제목 → 홈페이지 (www.naks-ne.org) 자료실 참조
- * 행사일정: 상세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속히 안내하겠습니다.

- 오후 2:00-2:30: 참가자 인원 점검
- 오후 2:30-3:00: 개회식, 감독/심사위원 소개 및 학년 별 교실 배정 안내
- 오후 3:00-4:00: 글짓기 대회 & 손글씨 자랑 대회
- 오후 4:10-4:30: 제 18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 NE 지역 대표 선발 대회
- 오후 4:30 광고 및 폐회
- * 수상자 발표: www.naks-ne.org *시상식은 5월 27일(토)에 가질 예정입니다.

(2) 2023년 제 3회 '손글씨 자랑 대회' 안내 및 참가자격

- 가. 참가자격: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재학생 (Pre-Kinder부터)
- 나. 참가방법: 연령별로 다른 단어/문장을 보고 예쁘고 멋지게 손글씨로 써서 제출
- 다. 시상: 참가자 모두에게 상을 주며 그룹별 가장 예쁘고 멋진 작품은 특별 시상
- 라. 감독/심사위원: 각 회원교에서 추천한 교사
- 마. 감독/심사위원 배정: 각 교실 마다 심사위원 2-3명, 감독교사 2명

(3) 제18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뉴잉글랜드지역 대표 선발 대회 및 참가자격

- 2005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학생으로 현 거주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협의회 소속 학생 (예외: 미국태생이나 부득이한 이유로 새 거주지로 이사하게 된 경우 거주지 협의회에서 3년 미만을 살았더라도 참가자격이 있음)
- 한국에서 정규교육(유치원 제외)을 1년 이상 받지 않은 학생으로 지난 대회(1-17회) 때 대상을 수상한 학생은 참가 불가
- 발표원고: 대회 소주제인 '나눔(자신의 꿈을 '나눔'이라는 Key word 와 접목시키기를 권장함)
- 원고 제출 마감 및 파일 보낼 곳: 4월 30일 11:59 PM 까지 이메일 naks-ne.org@gmail.com
- 발표 시간 제한: 3-4분 정도 분량/3분 미만이거나 4분 초과 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NE 대표로 선발되면 발표 동영상 제출하고 14 지역 대표가 참가하는 본선대회를 갖습니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NE Chapter



HOME RENOVATION
NAMU |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FULLY LICENSED AND INSURED

- MA Construction Supervisor License (General contractor) 건축자격증 보유
-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 가입

무료
견적 상담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www.namuma.com
info@namuma.com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INSTAGRAM
@namu_finewood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